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1956년 창간된 月刊 『考試界』가 2012년 6월호로써 창간 5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月刊 『考試界』를 애독해 주셨던 수많은 독자들, 그리고 좋은 글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집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月刊 『考試界』가 창간될 무렵인 1950년대 후반의 어려운 경제적·문화적 상황 속에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의 발현이라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 동량을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창간 후 지금까지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창간 후 56년이 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여러 독자들의 애정과 전국에 계신 법대 교수님, 많은 법조인, 나아가 여러 집필자님들께서 양질의 옥고를 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국경이 없어진 지금의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54년간 법조인 선발을 책임져온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 변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月刊 『考試界』는 다음의 내용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창간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갈 것을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 상 훈

(월간 『考試界』 · 고시계사&멘틀 대표)



첫째, 애독자의 성원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잡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간되는 잡지뿐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www.gosi_law.com), (www.edual.kr)을 통하여 독자분들과 쌍방향의 정보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月刊 『考試界』 만이 만들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향하겠습니다. 정성과 노력이 알아야 들어간 글, 수험가의 흐름과 핵심을 읽어내는 분석, 합격 후의 내일을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된 잡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제도에 따른 예비시험의 도입문제, 외교관 양성의 기관으로서의 외교아카데미 설립문제 등 각종 고시제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정책당국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매개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月刊 『考試界』 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애독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0년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